



기뻐하는 코웨이 블루윙즈 11일 오후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22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 춘천시청-코웨이 경기, 코웨이가 춘천시청을 70-67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코웨이 양동길 주장이 삼페인 터트리며 임찬규 단장과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 전국체전 개·폐회식 총감독 위촉

박명성 예술감독...광주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 경험 풍부



전남도는 12일 도 청사에서 2023년 목표를 중심으로 개최 예정인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박명성 예술감독을 위촉했다. 박명성 총감독은 해남 출신으로 지난 1982년 연극배우로 문화예술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40여 년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 프로듀서로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1999년부터 혁신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로 초대형 뮤지컬을 기획, 제작하며 한국 뮤지컬 흥행기록을 이끈 뮤지컬계의 '미다스(midas) 손'으로 통한다. 특히 2013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2017년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개막식 총감독 등을 통해 쌓은 탁월한 행사 기획력과 연출 노하우로 국민 스포츠 축제의 시작과 끝을 성공적으로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탁월한 무대 연출 역량과 스포츠 행사 개·폐회식 기획연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의 위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벤투호 포상금 1인당 최대 3억4천만원

정몽규 20억원 기부...26명에 균등 배분 예정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성과를 거둔 한국 축구대표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2일 축구대표팀을 위해 포상금 20억원을 기부했다. 이에 따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1인당 포상금은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위해 20억원의 추가 포상금을 별도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정 회장이 기부한 포상금 20억원을 26명 선수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5월 협회 이사회가 정한 카타르 월드컵 성적에 따른 포상금과 아시아 최종예선 통과 이후 기여도에 따라 1인당 최소 2억 1000만원에서 최대 2억 7000만원을 받았다. 정 회장이 20억원을 기부하면서 선수들은 추가로 약 7000여만원씩을 더 받게 됐다. 이로써 선수 1인당 포상금은 개인당 최소 2억 8000만원에서 최대 총 3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협회는 "국제 축구연맹(FIFA)의 카타르 월드컵 참가국 배당금 기준에 따라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약 170

억원(1300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월드컵 아시아 예선 통과에 따라 당초 선수단 포상금을 총 배당금의 50% 이상 지급을 계획했

다"며 "하지만 월드컵 아시아 예선 통과에 따라 당초 선수단 포상금을 총 배당금의 50% 이상 지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로 한국 축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축구 팬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며 "축구협회가 기존에 책정한 포상금 외에 협회장으로서 선수단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18년에도 대표팀의 외국인 코칭스태프 연봉 지급 등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4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뉴시스

카타르월드컵 16강 전인 '나상호' 고향 담양 방문

담양 수북면 출신... "고향서 큰 환영 받아 감회가 새롭다"



'벤투호 황태자' 중 한 명으로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견인했던 나상호 선수가 12일 고향 담양을 방문했다. 담양 수북면 출신인 나 선수는 가

나 선수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의 성과를 거둔 국가대표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 우루과이전에서는 선발 출전해 중형무진 그라운드를 누볐고, 가나전에서 2점차로 뒤진 후반 조커로 투입돼 팀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추격에 일조했다. 이 군수는 "월드컵 16강 진출에 큰 역할을 한 나 선수가 있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나 선수와 함께 해 주신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나 선수는 "고향에서 큰 환영을 받아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담양에서 태어난 나 선수는 능주초와 광양중, 금호고, 단국대를 거쳐 현재 FC서울에서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주역이기도 하다. /담양·조승채 기자

전남 드래곤즈 재도약 위해 새 코치진 구성



프로축구 K리그2(2부) 전남 드래곤즈가 새 시즌 재도약을 위해 새 코치진을 구성했다. 전남 구단은 12일 "이장관 감독과 함께 할 신규 코치진으로 임관식 수석코치, 한동훈 코치, 조민혁 골키퍼 코치가 합류했다"고 알렸다. 기존 최희영 피지컬 코치와 김영욱 코치는 잔류해 호흡을 맞춘다. 임 수석코치는 현역 시절 전남 소속으로 172경기에 출전해 5골 4도움을 기록했다. 첫 지도자 생활도 전남에서 2015시즌에 시작했다.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